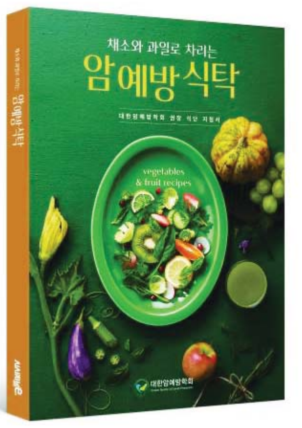
휴롬 "채소·과일은 손쉬운 건강 무기"… 암 예방 식탁 제안

대한암예방학회와 '암 예방 식탁' 발간
식습관-암 예방 영향, 근거로 정리
"채소·과일 섭취 늘릴 실천형 안내서"
70여 레시피·체크리스트 등 수록
LG화학과 친환경 착즙기 선보여
앰배서더 전현무와 건강 캠페인

휴롬이 LG화학과 손잡고 선보인 H310 친환경 착즙기.



휴롬이 대한암예방학회와 펴낸 '채소와 과일로 차리는 암 예방 식탁'.

'채소와 과일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일상적이며 손쉬운 무기입니다.'

'K-착즙기'의 대명사인 휴롬이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다. 제품 판매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단 새해에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다.

22일 휴롬에 따르면 대한암예방학회와 함께 "암 예방은 특별한 치료 이전에,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새 책 '채소와 과일로 차리는 암 예방 식탁'을 최근 펴냈다.

휴롬은 지난해 3월 암 예방의 날에 대한암예방학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채소·과일 섭취 증진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영향통계에 따르면 채소·과일을 하루 500g 이상 섭취하는 국민은 2016년 당시 33.1%에서 2023년에는 22.1%로 크게 줄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은 260g, 과일 섭취량은 128g에 불과하다. 특히 김치를 제외하면 하루 채소 섭취량은 182g으로 더욱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청소년은 1.4%에 그치고 있다. 거의 먹지 않고 있는 청소년은 79.5%나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최소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식탁에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 책은 WHO, 세계암연구기금(WCRF), 국립암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자료와 국내외 통계를 토대로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습관이 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실천형 안내서다.

총 4부로 구성된 책은 ▲데이터로 살펴본 한국인의 채소·과일 섭취 이야기 ▲건강을 위한 신선한 채소·과일 섭취 요령 ▲어린이, 어른 등 연령대별 채소·과일 섭취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70여 종의 레시피, 국민 암 예방 수칙 10, 하루 채소·과일 섭취 체크리스트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휴롬 관계자는 "대한암예방학회 권장 서적이기도 한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 예방을 위한 실천적 식생활 지침을 제공해 국민의 채소와 과일 섭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특히 채소와 과일 섭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휴롬은 최근 LG화학과 손잡고 최초로 친환경 착즙기 H310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휴롬이 LG화학으로부터 수명이 다한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선별 추출해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새 제품과 동등한 내충격성·내열성·가공성을 구현한 친환경 소재인 PCR ABS(고부가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만들었다.

휴롬은 또 방송인 전현무를 2026년 앰배서더로 발탁해 건강 캠페인도 적극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LG AI연구원, 3연속 'AI 정상회의' 초청

인도서 AI 위험분류 'KAUT' 공개
4대 영역·226항목 기준 등 제시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동 주관 행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LG

LG AI연구원이 서울과 파리에 이어 올해 인도까지 3차례 연속 'AI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국내 AI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인도 AI 정상회의'에 참가해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과 실행 성과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이날 LG AI연구원이 개발한 범용 AI 위험 분류체계 한국판(KAUT)을 공개했다.

김 부문장은 "LG가 개발한 AI 위험 분류체계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본 토대로 설계하면서도 보편적 원칙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과 멀티 AI 에이전트의 담합, AI 안전장치 우회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범용 AI 위험분류체계 한국판은 잠재적 위험을 ▲인류 보편적 가치 ▲사회 안전 ▲한국적 특수성 ▲미래 위험 등 4개 핵심 영역, 226개 세부 위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5가지 구체적 판별 기준이 있어 하나의 위반 사항만 발생해도 AI가 부적절한 응답을 했다고 분류한다.

LG AI연구원은 오는 5월 글로벌 공개를 앞둔 'AI 윤리 MOOC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전 세계 AI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분야의 AI 윤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렀던 AI 윤리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LG AI연구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윤리영향평가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AI 에이전트 등 실전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들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AX 본격화

중기중앙회, 2년 870억 투입
안전·공정·경영·체감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해 중소 제조기업의 안전과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규모는 올해(645억원)부터 내년(225억원)까지 총 870억원으로, 2년간 총 36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당 정부가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AI 기술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사업은 두 가지로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은 중소 제조기업이 실제 공정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직접 해결하는 과제로 꾸민다.

'지역산업 육성 유형'은 지역을 대표하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AI 성공 모델을 만든 뒤 협력업체와 동일 업종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AI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분야' ▲생산공정을 최적화해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공정혁신 분야' ▲반복업무를 자동화해 기업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경영혁신 분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소비자 체감형 분야' 등 네 가지 테마로 나뉘며, 총 16개 세부 테마로 구성했다.

중기중앙회는 뿌리업종 분야 및 협동조합 관련 과제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AX 과제를 발굴하고 후속 확산사업을 기획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TPU 코팅 방수커버 출시

땀·소변 등 액체 효과적으로 막아

에이스침대가 웰크론과 협력해 기존 마이크로케어 제품에 매트리스 보호 및 알러지 케어 기능을 더한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를 출시했다.

22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마이크로케어 방수커버는 원단 표면에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코팅 기술을 적용해 물·땀·소변 등 액체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내수압 2000mm 이상의 방수 성능으로 매트리스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수면 중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의 사람이나 생활 오염 노출이 잦은 영유아 가정 등에서 매트리스의 오염과 변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제품 본연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준다.

/김승호 기자

한샘

'스위브 더마스터' 선봬

이태리 황소가죽 '올 레더' 스윙소파

한샘이 이태리 명품 가죽의 차별화한 품질과 자유로운 공간 활용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파 '스위브 더마스터'를 출시했다.

22일 한샘에 따르면 신제품은 한샘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의 가죽 스윙소파로, 제품명인 '더마스터'에 걸맞게 소재부터 디자인, 기능까지 소파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렸다.

이태리 명가 '펠레밀라노(Pelle Milano)' 사의 1.6~1.8mm 황소 가죽을 사용해 천연 소재 고유의 고급스러운 질감을 구현했다. 특히, 전체 가죽으로 마감하는 '올 레더(All-leather)' 사양으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완성도 높은 마감과 탄탄한 내구성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한국타이어

장기 PPA로 탄소 줄인다

헝가리공장, 10년 430GWh 계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올해 유럽 헝가리 공장에 대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 한국타이어는 헝가리공장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골든피스 캐피탈(GPC)'과 10년간 총 430GWh 규모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PC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한국타이어는 GPC로부터 매년 43GWh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는 약 2만8700가구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양성운 기자 ysw@